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김덕수 신임 소장 인터뷰

# 특집

CTL(교수학습개발센터)에 소장으로 부임하시 전에 CTL에 가졌던 느낌과 오신 뒤에 느낌은 어떠한가요.

• • •  
민혜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교수

2006년 2월 말에 신임교수로 부임하자마자 CTL 신임교수 워크숍에 참석해서 서울대에서 교수로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교수가 훌륭한 교수인지에 대해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는 역사교육과 교수들이 CTL 교수 집담회로 모여 전공 강의를 잘하기 위한 강의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서로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고, 매 학기 수업 중에 eTL에 접속해서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학습자료를 탑재하고 과제물을 수합했습니다. 최근에는 i-pad 활용법에 대한 강좌를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말에는 소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신임교수워크숍에서 신임 소장으로 인사를 하면서 8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서 선배와 후배가 멘토와 멘티로 만나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 내에서 교수-학생들이 이 기관을 잘 활용하면 교수학습활동에 있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CTL의 역할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생의 선배로서, 아버지, 선생님, 친구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멘토입니다. 저는 우리 CTL이야말로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관은 교수들에게 강의에 대한 생각을 돌아보게 하고 본인의 강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CTL은 교수들에게 교수법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의 테크닉을 잘 가다듬도록 지원하며, 자신의 강의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는 곳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수가 말하고 학생은 받아 적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넘어 각종 교육 매체를 활용하고 토론과 발표 등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좋은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강의실 안에 갇혀있던 강의를 대학을 넘어 외부,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까지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강의를 양적,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수강생의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질적으로는 그렇게 수강생이 확대될 때, 그 교수자는 공개되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한 강의 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CTL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도와 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가 가르쳐 준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학습활동이 끝나지만 대학 강의에서는 교과서가 따로 없고 교수의 강의와 다양한 연구서 연구논문, 학습자료를 읽어야 하고, 발표, 논술형 시험, 과제나 보고서를 제출해서 종합적으로 성적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대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은 있지만 변화된 학습활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CTL에는 이를 위한 학습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글쓰기교실이나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를 잘 듣고 과제나 논문 등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자신의 지식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이니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사실 저 역시 소장으로 오기 이전까지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역할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되고 나서 보니 CTL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각 분야별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이 명실상부한 교육지원기관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CTL의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부터 그 동안 가르치는 역할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반성도 합니다. 교육과 연구, 봉사를 교수의 3대 직무라고

할 때 교수들은 연구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반면 교육 활동, 즉 강의와 학습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이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적어도 교육에 관해서만큼은 자기 방식을 한번쯤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강의와 다른 사람의 강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고 내 강의도 한번 찍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 번 살펴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합하면 대학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의 표현,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CTL의 역할이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교수,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CTL이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장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학생들의 기초교육 및 입학 전 교육〉

최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특히 사회과와 과학과에 있어 선택과목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나 과외 등에서 입시에 중요한 국영수 위주의 학습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사회과는 10과목 중에, 과학과는 8과목 중에 두 서너 과목만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다른 과목들은 아예 배우지도 않습니다. 특히 입시에서 중요한 수능 시험에서는 문과 학생은 과학과를, 이과 학생은 사회과를 아예 치르지도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 때 정상적으로 배워야 할 과목들 중에 입시에 ‘불리’하고 어려운 과목들은 학생들에게 ‘선택’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학습 내용의 과다에 따라 특정과목이 기피과목 혹은 선호과목이 되다보니 과목 간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입학해서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교양이나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도 많고, 반면에 교수들은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안타까워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미진했던 분야, 특히 사회와 과학 분야에 대해 CTL이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 입학전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통해 보충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놓치고 지나간 몇몇 중요한 과목에 대해 좋은 강의자를 구해서 CTL을 통해 입학 전 교육을 2과목 정도 제공하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 〈교수학습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우리 기관이 교수들에게 강의에 대한 생각을 점검하고 강의 방법을 좀 더 개선하는 데,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지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실 상부한 교육 지원기관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전공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지만 교수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일하면서 교수가 교육에 더 신경 쓰고 자신의 수업방식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연구하기가 힘듭니다. 다들 각자의 일에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학은 연구소와는 달리 학생들과의 수업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어떤 교수가 정말 뛰어난 연구자라 할지라도, 연구한 내용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강의 방식을 개선해서 가르치는 즐거움을 더 많이 느꼈으면 합니다.

### CTL 소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CTL을 이끌어나가실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일을 하게 되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동료 교수들이 재직 기간 동안 한번쯤 CTL에서 자신의 강의를 한번 촬영해 보고, 스스로 자신의 강의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또 CTL의 프로그램들이 특정 사업비로 운영하다 보니 예산의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도 제때에 못주는 일도 때로 벌어집니다. 소장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부적인 문제도 잘 조정해서 구성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말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관의 정식 명칭인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을 생각한다면 우리 기관이 나아갈 방향이 잘 제시될 거라고 봅니다.